

### ▶법회 및 기도 안내◀

-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00 - 12:30
- 어린이 법회: 일요일 오전 11시
- 청년(선우회) 법회: 일요일 오후 14시
- 어린이 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공지사항◀

#### 2015년 신년 특별 법회안내

- 1월 4일(일) 오전 11시, 주지스님, 신년법회
- 1월 11일(일) 오전 11시, 화공스님, 불교학 박사
- 1월 18일(일) 오전 11시, 선학스님, 한의학 박사
- 1월 25일(일) 오전 11시, 현전스님, 북경대 박사

### ▶기 도 동 참 (12월28일 - 1월 3일)◀

- 법등: 림관현 이관제 이주연 최종호 윤여원 이승연  
김택영 김대성 김대유 김미경
- 인등 만등: 최엘리사 최동민 마이크 시드니 윤수진  
윤수민 윤수인 김신아 김희상 김카일 J.T. Fisher  
Addie Fisher
- 보시: 림관현(건축) 정유진
- 대중공양: 박병현 이현심화 이진각행(과일공양) 최종호  
김태연(떡공양) 이미나 불국화(꽃공양)

- 회주: 현성스님
- 주지: 성향스님

## 일요법회

불기 2559(2015)년  
1월 4일 제22호

4360 W. MONTROSE AVE., CHICAGO, IL, 60641 T:773-286-1551



## 부처님 말씀

사랑스러운 예쁜 꽃이

빛깔도 곱고 향기가 있듯이

아름다운 말을 바르게 행하면

반드시 그 결과 복이 있느니라.

- 법구경 -

## 업業만 따라갈 뿐이다.

올 적에 한 물건도 없이 왔으니 갈 적에도 또한 빈 손으로 간다.  
만물 중에 가져갈 것이 없는데 오직 지은 업만 따라갈 뿐이다.  
내무일물래 거역공수거 만반장불거 유유업수신(來無一物來去亦空手去 萬般將不去 唯有業隨身 ,자경문.)

인생이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한 번 왔다 가면 그만인가? 아니면 돌고 돌아 다시 오고 다시 가는 것인가? 올 때는 무엇을 가지고 왔으며 갈 때는 또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부처님께서도 이런 생사(生死)문제를 심각하게 번민하다가 반드시 해결(解決)하고야 말겠다는 서원을 세우시고 출가하셨습니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크게 문제 삼아 왔고 이것을 확연(廓然)히 깨달아 아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올 때도 한 물건도 가져오지 못하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리 처자권속(妻子眷屬)이 많다고 할지라도, 재벌의 아성(牙城)을 쌓고 명예가 높고, 권세를 떨치더라도 아무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지은 업(業)만 따라다닐 뿐입니다.

업이란 몸(身)·입(口)·뜻(意)으로 지은 선악의 소행을 말합니다. 이것이 미래에 선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됩니다. 한 존재가 죽으면 그 세상이나 다른 세계에 새로운 몸을 받아 태어나고, 그곳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 세상이나 다른 세계에 새로운 몸을 받아 태어나고, 그곳에서 살다가 죽으면 다시 그곳이나 다른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죽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存在)는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며 삶과 죽음을 끝없이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윤회(輪廻)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千差萬別)로 다른 것은 지은 업(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불만스러우면 자신이 지은 업을 탓할 일이지 결코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회에 자신이 없거나 내생(來生)이 불안한 사람은 이 순간부터 지혜를 갈고 닦으며 삼독을 소멸하는 선업(善業)을 많이 지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을 향한 신심(信心)으로 기도를 하고 절을 드리며 참선과 간경 등의 여러 가지 난행과 고행을 하는 것은 부(富)와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금생에도 내생에도 지금과 같이 부처님께 돈독한 신심을 내고 지극한 마음으로 수행하시어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 뿐이어야 합니다.

불교인의 가치관은 이와 같아야 생각이 바르고 여법하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타사 신도님들,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어떤 해보다도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늘 염두에 두시고 사시면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금생(今生)에 우리가 불법을 만나 불교 공부와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소중한 불법을 만났을 때 바른 법을 공부하고 정도(正道)를堂堂(堂堂)하게 걸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